

## 童詩 “개”

「이 개 더럽잔니」  
아——니 이웃집 덜렁 송개가  
오날 어슬렁 어슬렁 우리집으로 오더니  
우리집 바둑이의 밑구멍에다 코를 대고  
씩씩 나를 맛겠지 더러운줄도 모르고,  
보기 승해서 막차며 욕해 쫓았더니  
꼬리를 휘휘 저으며  
너희들보다 어떻게냐하는 상으로  
뛰어가겠지요 나——참.

## 개

「이 개 더럽잖니」  
아——니 이웃집 덜렁 수개가  
오늘 어슬렁어슬렁 우리집으로 오더니  
우리집 바둑이의 밑구멍에다 코를 대고  
씩씩 나를 맡겠지 더러운 줄도 모르고,  
보기 흥해서 막 차며 욕해 쫓았더니  
꼬리를 휘휘 저으며  
너희들보다 어떻게냐 하는 상으로  
뛰어가겠지요 나——참.